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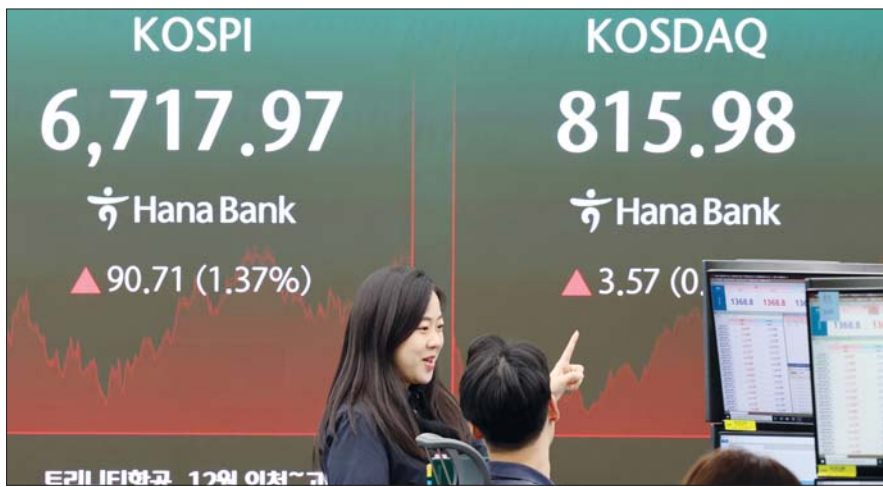
외국인 셀코리아에도… 글로벌 IB “코스피 1만2000 간다”

골드만·JP모건, 코스피 전망 ‘낙관’
기업 구조 개혁·반도체 호황 영향

외국인, 이달 코스피 10.6조 순매도
매도 폭격 속 긍정 전망 의구심에
관계자 “전문가 객관적 분석” 일축

최근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한국 주식 매각)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머시 모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양수석 주식전략가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코스피 목표치 1만2000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 1만2500을 유지했다.

◆“한국 증시 및 반도체, 여전히 매력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올해 코스피지수는 60% 남짓 올랐다.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가 올해 10%가량을 랐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약 26%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앞선다. 외국계 IB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코스피는 전일보다 1.37% 오른 6717.97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57포인트(0.44%) 오른 815.98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한국 증시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구조적 기업 개혁과 반도체 호황을 든다.

모 전략가는 “우리는 여전히 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예상한 실적을 실제로 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이번 실적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코스피 목표치를 9000에서 1만2000으로 높였다. 당시에

도 시장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JP모건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자산효과에 따른 금융·소비 업종 수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올해 하반기 주요 투자 테마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지난 5월 코스피 목표치를 1

만~1만1000으로 상향 조정한 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들었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1만, 2만배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도 각각 67만원, 470만원으로 유지했다. 두 종목의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7% 하락했지만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이 평균 3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에 오호려 커졌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올리고 코스피 목표치 9000을 유지했다.

◆외국인은 왜 팔까?
글로벌 IB들의 한국 증시 추천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일부러 장밋빛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글로벌 IB

들이 한국 바이오주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공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조 5800억원 순매도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3조6000억원)와 SK하이닉스(5조4900억원)였다. 이어 삼성전자유, DB하이텍,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두산, HD현대중공업 등이 순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내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리서치 부문과 트레이딩(매매) 부문은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다”면서 “외국계뿐만 아니라 다수 국내 증권사도 올해 워낙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ETF 투자, 어떻게 하지?”… 삼성자산운용, 학습형 가이드북 공개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 정복’
학습지 형태 적용한 기본서 선배
하반기 시장 전망·대응전략 제시도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품을 고르는 법부터 시장 상황에 맞는 활용 전략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사도 넓어지고 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비용과 구조, 분배 방식 등에 따라 상품별 특성이 달라지는 만큼 ‘무엇을 살지’에 앞서 ‘어떻게 볼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ETF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학습형 가이드북을 내놓고,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

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 정복’ 기본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시장 전망과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ETF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서는 ETF 투자에 필요한 핵심 개념과 구조를 일주일 동안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 형태로 구성됐다. 최근 ETF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정보가 늘어난 가운데, 투자자들이 복잡한 금융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삼성자산운용ETF컨설팅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정복’의 제작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책자는 올해 삼성자산운용 임직원들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접한 질문 가운데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을 선별해 담았다.

김 본부장은 “시장 방향과 무관하게 ETF 투자 시 기본적으로 알아둘 수 있는 비용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시장이 슬로우해진 시기이지만 투자자들에게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 고객들의 중첩되는 질문들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학습지 형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하루 10분씩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 관련 퀴즈와 실습 문제를 풀며 이

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DAY 1 ‘ETF의 기본 구조와 거래’ ▲DAY 2 ‘가격·비용·분배와 첫 선택’ ▲DAY 3 ‘ETF 속을 읽는 방법’ ▲DAY 4 ‘상품구조와 비교 기준’ ▲DAY 5 ‘투자 목적에 맞춘 활용’ ▲DAY 6 ‘전략·세금·투자 원칙’ ▲DAY 7 ‘최종 점검-나의 ETF 투자 준비’ 등 7일 과정이다.

이어 임태혁 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 상무는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함께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ETF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임 상무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 단기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고점과 저점을 맞이하려는 단기 매매

보다 한국과 미국 대표지수를 중심으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시장 판단과 투자 성향에 따라 월배당 상품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테마, 채권형 ETF 등을 조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 상무는 “앞으로도 삼성자산운용 KODEX ETF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안정적인 운용은 물론 기초 교육 콘텐츠와 상황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ETF 브랜드로서 시장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 “美 고금리 장기화… AI 투자 사이클 ‘변수’”

실물경제·신용시장 전이 중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기업 신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까지 금융시장 전반으로 신용위험이 확산하는 모습은 뚜렷하지 않지만,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기업 간 자금·신용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키움증권은 16일 ‘고금리 부담, AI 투자와 신용시장의 연결고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던 기대가 인상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가 재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기업 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표현한 이미지.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기금리 상승이 곧바로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고금리 부담이 실물경제와 신용시장으로 전이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특히 AI 투자 지속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AI 투자는 높은 현금창출력을 보유한 하이퍼스케일러가 주도하고 있어 재무적 기반은 비교적 양호하다. 하지만 데

이터센터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금 활용도 확대되고 있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자본비용 상승에도 현재의 투자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AI 투자 사이클의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AI 생태계 내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공급자 금융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다시 그래픽처리 장치(GPU)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로 유입되는 이른바 순환금융 구조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기업 간 자금과 신용의 연계성이 높아질수록 특정 기업의 수익성 악화나 신용도 하락이 AI 생태계 내 다른 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용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투자등급(IG)과 고수익(HY) 회사채스프레드가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MTS, ‘맵스’로 새 단장

내달부터 M-STOCK서 명칭 변경
디지털자산까지 플랫폼서 거래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엠스탁)’이 다음 달부터 ‘MAPS(맵스)’로 이름을 바꾼다. 주식 거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MTS를 넘어 주식·연금·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0월 1일부터 MTS 명칭을 기존 M-STOCK에서 MAPS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MAPS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지난 6월 선보인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다.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까지 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에서 먼저 MAPS를 출시한 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서비스를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0월 1일부터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명칭을 기존 M-STOCK에서 MAPS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MTS에도 플랫폼 개편 방향을 반영한다. 기존 M-STOCK에서 제공하던 주식 매매 기능에 더해 투자 정보를 탐색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의 시세와 투자 정보 역시 기존에 나뉘어 있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I 관련 서비스도 앱 내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주식과 연금은 물론 디지털자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